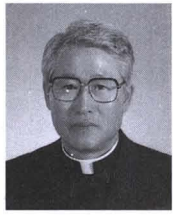


강론 ...

‘우리는 물건일 수 없다’



김병운 신부
(효자동 주임)

명절이어서 모처럼 사 입은 바지였다.

하나밖에 없는 바지여서 매우 귀한, 없으면 안 될 것이었다.

몇 해가 지나면서 바지는 낡았다. 헤어진 곳을 꿰매기 위해 천조각을 구했다. 그것

은 새 형겂이어서 아직 줄어들지 않은 것이었다. 그 형겂으로 바지를 기웠다. 얼마 후 그 바지를 빨았을때 물을 먹은 새 형겂은 줄면서 낡은 바지의 천을 찢어놓고 말았다.

헌옷과 새 천조각, 새술과 헌 부대의 이야기가 종종 인용되고 있다. 여러가지 논란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소지는 새 것과 헌 것에 관련된 논의인 것 같다.

‘우리집에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 편할 날이 없어 우리 사무실은 단합과 친목이 잘되는 분위기였는데 과장 한사람이 바뀌면서 썰렁한 바람이 불고 있어 등등. 진보성향이 없다고 낙인찍히고 보수진영 계파에 쪼들었다고 왕따 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철두철미하게 금을 긋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제2독서)에서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정신은 어떤 물건에다가 또는 어떤 들판에다 적는 것이 아니다. 살로 된 마음, 즉 살아있는 가슴에다 적는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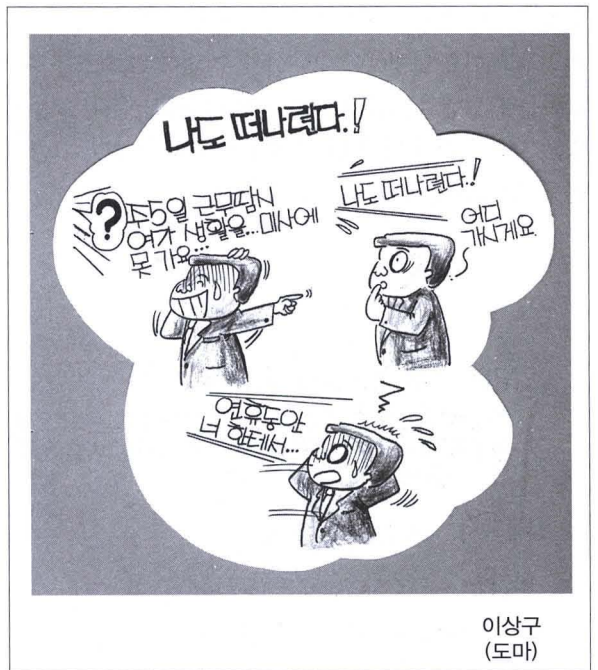
바지는 물건이다. 낡은 옷도, 옷감 한조각도 물건이다. 한 통의 포도주도 물건이요, 그것을 담고 있는 부대도 물건이다. 물건에 힘을 가하면 금이 가고 부서지고

깨지고 찢어진다. 물건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양보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른다.

우리는 생명체이다.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결코 물건일 수 없다. 물질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 살아있는 것은 연하고 부드러우며 보기도 좋다. 그 생명이 하느님의 사랑의 샘에 접목이 될 때 참 아름다움을 입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자.

숲머리 생각



이상구
(도마)

구원의 요청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나는 왕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나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 16,7)

북 왕국 이스라엘이 있어 그런대로 평온한 나날을 지내오던 유다 왕국에 일대 위기가 닥쳐왔다. 동쪽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야 자주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하여 아예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국가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었다. 유다 왕 아하즈는 급히 아시리아에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였다. “내가 지금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나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라도 하듯 아시리아는 시리아를 점령하고 왕 르신을 죽였다. 유다를 보아서가 아니라 정복의 기회를 포착한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왕을 찾았다. 하느님을 섬겨야 할 그였지만 이방의 왕을 찾아가 경배를 올린 것이다. 하느님 백성의 치욕이요 불명예이지만 어쩔 수 없다. 아하즈는 아시리아를 흠모했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방의 제단을 본따 만든 뒤 야훼의 전 앞에 놓았다. 그는 마음도 행실도 하느님을 떠나 있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다. 자신의 외교적 노력이 성공했음도 과시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외면하고 말았다.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신 하느님이 작게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이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임을 알지 못했다. 유다가 살아난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요 멸망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가 깊어지면 유다도 분명 망하고 말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멸망의 징조들이다.

살고자 하는 지구책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위험이 닥치거든 자신을 구해 줄 이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달려갈 일은 아니다. 먼저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 사람의 도움은 매이는 끈이 되고 그것으로 망할 수도 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진정 자유를 주는 해방이 된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실 지라도 그분만이 품위를 지켜주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위급할 수록 하느님께 의탁하고 구하는 자만이 진정 완전한 구원을 얻으리라.



입당송 시편 18(17), 19-20 참조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 주셨도다.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제1독서 호세 2,16-17-21-22

화답송 시편 103(102), 1-2,3-4,8과 10,12-13 (◎ 8-7)

◎ 주님께서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도다.

제2독서 2코린 3,1-6

복음 환호송 아고 1,18

○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도다.◎

복음 마르 2,18-22

영성체송 시편 13(12),6 참조

온갖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미하며, 자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오리다.

‘밥을 꼭 챙겨 먹읍시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한 명이 먹은 쌀은 80.7Kg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밥을 두 공기도 못 먹었다는 말이라는군요. 서구화된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밥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식사는 머리의 뇌세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리

식단으로 밥보다는 다른 종류를 더 선호한다니 국민의 건강과 우리 농촌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발표한 지 닷새만인 지난 2월 7일, 미국 무역대표부의 리처드 크라우더 농업협상수석대표는 “한국 정부는 쌀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수입쌀도 시중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쌀 소비마저 감소추세에 있으니 우리 농민의 생존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만났을 때, “밥 먹었냐”는 물음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를 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침식사, 특히 밥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뇌세포를 둘러싼 신경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밥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자기네 쌀로 지은 밥을 먹여서 아이들의 건강과 일본 농업을 지킬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명의 근원지인 농촌을 생각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쌀로 지은 밥을 꼭 챙겨 먹어서 건강도 지키고, 우리 농촌도 지키는 해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덕자(안젤라) ·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문화의 향기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

안셀름그렌 / 바오로딸 / 7,500원

성베네딕토는 특히 수도원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질에 대해 말하며,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창조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심하게 다루는데 경영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 성베네딕토의 경영 목표는 공동 작업 속에서 ‘하느님의 집’을 세우는데 있다고 한다. 즉, 형제들이 평화와 기쁨 속에서 함께 살고, 치유와 사랑의 하느님이 함께 있음을 증언하는 집을 건설하는 데 있다고 한다.



미사, 기쁨의 잔치

정의철 / 생활성서사 /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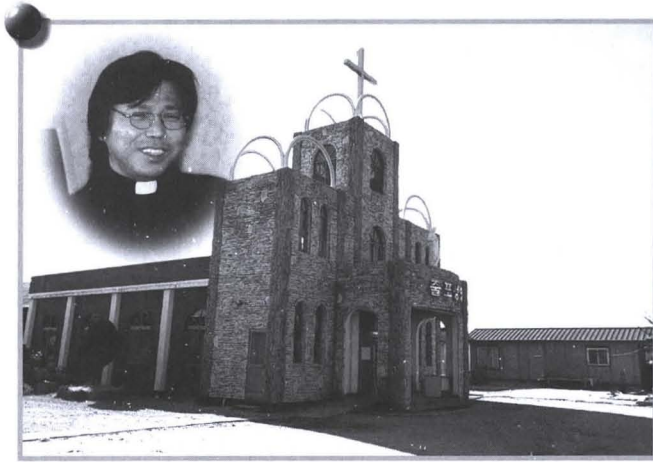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전례인 미사의 역사와 유래, 구조와 절차 그리고 전례 동작과 용구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 등에 이르기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을 간추려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여름엔 수해, 겨울엔 설해 거듭속

오히려 감사 · 주일헌금 줄이어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먼저 완납 '솔선수범' -



가톨릭 센터가 2006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각 본당마다 배정된 신축기금이 제대로 봉헌이 안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0% 완납한 성당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바로 지난 여름에는 수해로, 겨울에는 폭설로 재해를 입은 줄포 선교 성당(주임=송영진 신부)이다.

줄포 선교 성당은 부안 성당 관할 줄포 공소로 있다가, 1999년 2월 5일 서정현 신부님께서 초대 주임신부로 오시면서 지역의 선교 성당이 되었다. 농촌의 어느 성당이나 마찬가지로

대부분 60세를 넘으신 150여 명의 신자들이 주일 미사를 드리고 있다. 신자들의 60~70%가 주로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난 봄에는 때 아닌 서리로 고추농사를 망쳤다. 그리고 고창 수박보다 당도가 높기로 유명한 줄포 수박이지만 너무나 수확이 잘 되어 가격이 폭락하여 인건비도 제대로 못 건지고 말았다. 또한 여름에는 수해로 비닐하우스가 지붕까지 다 잠기고, 논과 밭이 모두 침수되어 농작물을 거의 건질 수가 없었다. 겨울에는 첫눈이 내리면서부터 12월 한 달 내내 내린 유례없는 폭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대부분의 신자들이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고 축사와 창고가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태어나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어른 키 높이까지 쌓여 신자들이 성당의 미사도 가지 못하고 눈 속에 갇혀서 생활했다. 이런 일을 거듭 겪으면서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법도 하련만, 그런 와중에도 혹시나 성당은 피해는 없는지 걱정이 되어 성당으로 먼저 달려오는 신자들을 바라보며, 송영진 신부님은 이렇게 착한 신자들을 주심에 감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어찌 가톨릭센터 신축기금을 말할 수 있었으랴. 2005년 봄, 송영진 신부님께서 줄포 선교 성당에 부임해 보니, 본당 재정은 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본당에 배당된 가톨릭센터 신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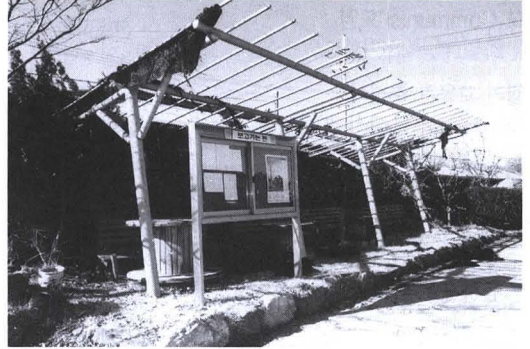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 228-6002~3

젬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약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라)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옆)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형제적 사랑으로 제주관광 및 성자를
 정성껏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시
 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 · 호텔 예약 문의
 ☎(064)758-6476 H·P 011-697-6476

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당시 가톨릭센터 신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 초부터 격주로 2차 현금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배정된 액수를 채우기에도 턱없이 모자랐고, 신부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주일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 몇 차례 지켜보다가 2차 현금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가톨릭센터 신축기금은 형편대로 내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신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식복사를 두지 않고 자취를 하였고, 사무장도 없이 사목회 임원들과 일을 나누어 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였다. 이런 신부님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 사목회에서도 많은 비용들을 절약하려고 노력했고, 불필요한 지출은 억제하고 꼭 필요한 지출은 신자들의 봉헌으로 해결하면서, 지출을 줄여나갔다. 그러다가 여름과 겨울 크나큰 재해를 만나게 되었다. 끊임없는 재해로 낙심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박경우(루카) 사목회장은 “거듭되는 재해로 실의에 빠진 신자는 없었다.”며 “그런 재난들이 오히려 신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힘을 주어 더욱 일치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더 하느님께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더 많은 피해를 입고 더 큰 고통 중에 있는 신자들일수록 주일현금과 감사현금을 더 많이 내는 이상한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련은 겸손하게 하느님께로 마음을 열고 깨어 기도하라는 하느님의 음성이라는 듯이.

이렇게 하여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 더도 덜도 아닌, 가톨릭센터 신축기금을 완납할 만큼의 금액이 남았다. 아직도 많은 가정이 폭설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고, 2006년에도 본당 운영이나 신자들의 생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조팔남(바오로) 재정부장을 비롯한 사목회 임원들은 가톨릭센터 신축기금을 우선 먼저 내자고 의견을 모아 가장 먼저 완납하게 되었다. 신부님께서는 “줄포 신자들은 그저 자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다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지 굳이 고맙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심도 좋고 낙천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어 신앙심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아직도 녹지 않은 눈이 남아 있는 성당 마당의 한쪽에 무너진 시설물을 바라보며 나오는 길, 봉헌은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늘에 쌓는 신앙의 보물 창고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게 되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테살 15,16~18) 라는 말씀을 새기며 매사에 하느님께 의지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그대로 지상에서 천상 행복을 맛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박하게 살아가는 줄포 신자들의 신앙심에 마음이 숙연해졌다.

취재=양선자(아네스) 사진=이규현(루카)

KIA **기아자동차**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용입니다.
 · 승용, 1톤, RV등 전차종 다양한 할부이벤트
 (계약금 10만원, 최장 60개월 할부가능)
 · 신차구입시 중고차를 최고가로 매입해드립니다.
 · 타사 차량도 상담해드립니다.
 ■ 차량상담 : 011-793-8686
 ■ 야 간 : ☎(063)254-7226
 담당:차장 김영기(스테파노), 장영주(요셉마나)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정문 앞)
 약학박사 : 김용기(베드로)
 ☎(063)275-5700
 FAX. (063)275-5760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런
 소리를 추구합니다.
독 일 보 청 기
 김제점 : 구 간이배차정앞(546-3652)
 부안점 : 부안단위농협앞(581-3537)
 이길재(베드로) 김해숙(실비아)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베)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마트 아와주차장 앞



교구장 일정

- 주교 Communio 모임
2월 27일(월)~28일(화)
- 해월리 교육관 축성식
3월 4일(토) 오전 11시 30분
- 견진
3월 5일(주일) 오전 10시 둔울동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방문실 월례미사
2월 27일(월) 오후 2시 30분
문의 : 231-4446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3월 2일(목) 오전 10시 덕진
- 전주지역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2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군산지역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2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교구 기자단 견학
3월 1일(수)
- 해월리 교육관 축성식
3월 4일(토) 오전 11시 30분
- 창세기 어울 한마당
3월 4일(토)~5일(주일) 해월리
- 포콜라레 모임
3월 5일(주일) 오후 2시 복자성당 교육관
- 성모기사회 모임
3월 4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3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송천동
- 군산 하나회 미사
3월 5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 3월의 영화
삼일절 휴무로 쉽니다.

교육 · 피정 · 연수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강좌 1차 3일
2월 28일(화) 오전 10시 센터

- 본당 평신도지도자 교육
(전주지역, 김정교부, 임순남무진장지구)
2월 28일(화) 오후 7시~9시 삼천동
- 천호피정
3월 2일(목) 오전 10시
- 성체조배회 군산지구 사순절 피정
3월 2일(목)~4월 6일(목)까지 6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나운동
주제 : 예수마음기도 / 참가비 10,000원
- 천호피정
3월 4일(토)~5일(주일)
- 청년성서 36차 창세기 연수 재모임
3월 4일(토) 센터
- 남성 소공동체 교육
3월 5일(주일) 오전 10시 윤희관
대상 : 본당 남성 소공동체장, 구역반장
남성구역 형제회장 및 임원, 봉사자,
관심 있는 남성
준비물 : 필기구, 미사도구
참가비 : 1인당 10,000원
- 청년성서 상반기 그룹봉사자 재교육
3월 5일(주일) 센터
- 초등부 교리교사 아카데미 1차
3월 5일(주일) 전북대 평생교육원
- 가톨릭문우회 피정
3월 5일(주일) 오전 8시 30분 출발
장소 : 소양 성바오로복지병원 3층 강당
문의 : 245-5118~9
피정회비 : 20,000원(미사 있음)
- 주교님 사순절 신앙강좌
일시 : 3월 6일(월)~11일(토) 오후 7시
주제 : 생명을 주는 힘이신 성령
장소 : 삼천동 성당
- 구역(반)장 교육
3월 7일(화) 오후 2시 호성동
대상 : 동·북전주, 무진장 지역
3월 8일(수) 오후 2시 서신동
대상 : 서·남전주, 임순남 지역
3월 9일(목) 오후 2시 송학동
대상 : 익산남·북지구
3월 10일(금) 오후 2시 시기동
대상 : 김정교부 지구
3월 14일(화) 오후 2시 둔울동
대상 : 군산지구
참가비 : 1인당 2,000원
준비물 : 필기도구
신청 : 2월 28일까지 사목국

- 애령회원 교육
3월 12일(주일) 오후 2시 서학동
대상 : 각 본당 애령회원 및 관심있는
일반신자 /참가비 : 1인당 3,000원
준비물 : 필기도구
신청 : 3월 3일(금)까지 사목국
- 본당사회복지분과위원 교육
3월 12일(주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솔내청소녀수련관 3층 강당
접수 : 3월 7일(화)까지
준비물 : 필기 및 미사도구,
활동보고서 반드시 지참
문의 : 284-5290 사회사목국
- 제1차 전례봉사자 연수
3월 19일(주일) 오전 10시 윤희관
대상 : 본당 전례봉사자
참가비 : 1인당 10,000원
준비물 : 필기구, 미사도구
신청 : 3월 10일(금)까지 사목국

기타

- 전주가톨릭채리티츰버 탄생
신단원 모집 : 문의 016-654-7954
3월 둘째주부터 매주(수) 오후 8시 센터연습
- 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전주시 금상동
(舊소리개재)에 성당을 신축 (2005년 8월
말착공) 하면서 날팔당을 분양합니다.
납골시설요금 :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 교구청 관리국 286-0091
- 선녀머중합사회복지관 후원사업
독거어르신 / 장애인 야쿠르트 지원
(하루 1명의 야쿠르트를 지원할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 선녀머중합사회복지관
전북은행 541-13-0311676
문의 : 232-0334, 286-0334

새 가톨릭센터 신축현금 내역(2/13~2/19)
피터보로 한인순교자 성당 16,607,103
(캐나다 이금재 신부 CAD20,000)
익명 200,00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아동입양 및
후원상담
문의 : 02-764-4741
www.holyfac.or.kr /
www.성가정입양원

2006년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 3월 4일(토) 오후 4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장소 : 예수회 본부사감대K관 뒤
주제 : 예수의 벗으로 불리움
문의 : 02-719-1803
대상 : 대제 이상

마리아 남자수도회
(마리아니스트) 성소모임
대상 :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자
담당 : 김일영(프란치스코) 신부
문의 : 080-749-8547

거룩한 말씀의 회
성소모임
일시 : 3월 5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대전 본원
문의 : 011-9404-5637
김 사베리아 수녀
주제 : 깨어 있으라

동전주 지구 본당 소식

고 산

주임부: 263-4019 사무실: 262-4171 주임부: 이태주
수녀원: 263-4110 서목회장: 김중서

1. 예비자 교리 개강 : 오늘부터 전9시 넓은바위 교리실
2. 재의수요일(재의 축복식) : 3월1일(수)전10시 *금식과 금육
3. 사순절 달력 / 절제 현금 저금통 배부합니다
4. 사목회 : 28일(화) 후8시
5. 방문성사 및 영성체 : 7일(화)-10일(금) *구역,공소 명단제출바람
6. 교무금 및 센터신축금을 월 분납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7. 금주모임 : 일-장우회, 성가정회, 청년회, 수-대건회.
금-돈보스코회
8. 금주 성당청소 : 퇴재,미남공소
■ 지난주 봉헌금 : 1,151,900원 ■ 교무금 : 1,105,000원

금 암

주임부: 251-1912 사무실: 251-1911 주임부: 김요안
F A X : 251-3850 수녀원: 253-C325 서목회장: 나연구

- ◎ 사순절 기간동안 주 1회 평일미사에 참석합니다.
1. 재의 수요일 예식(금식과 금육) : 3월1일(수) 전 10시, 후 7시
2.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 평일미사 후
3. 사순절 특별강론 : 5일(주일) 교중미사, 치명자산성지 김봉희신부님
4. 사순절 돼지저금통을 정성껏 살피웁시다.(구역반장님을 통해 분배)
5.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입교를 권유하며 교리반에 인도합니다.
6. 쉬는 교우와 함께 옵시다.
7. 금주 모임 ① 구역반장회의 - 3일(금) 전 10시
② 성마리아 Cu - 4일(토) 후 2시
③ 요셉회 - 5일(주일) 교중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1,834,000원 ■ 교무금 : 2,320,000원

봉 동

주임부: 261-1005 사무실: 261-1004 주임부: 범영배
F A X : 261-1006 서목회장: 김진호

1. 금주모임 ① 요셉회, 안나회, 여성분과회 - 공식미사후.
② 재대회 - 1일(수)미사후.
③ 사목회 - 3일(금)후8:00.
2. 차주모임 ① 성심회 - 공식미사후.
3. 오늘 입교하신 형제,자매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 합니다.
4. 금주전례 : 해설 - 김병현 독서 및 복사 - 장현철, 이용숙.
제물봉헌 - 권중근(요셉)부부.
5. 차주전례 : 해설 - 원문환 독서 및 복사 - 박원모, 정희숙.
제물봉헌 - 황호경(바로로)부부.
6. 미사안내 : 금주 - 천주의 모친pr. 차주 - 사랑을 어머니pr.
■ 지난주 봉헌금 : 700,900원 ■ 교무금 : 1,062,000원

소 양

주임부: 244-1771 사무실: 244-3007 주임부: 양재철
F A X : 244-6767 수녀원: 244-6762 서목회장: 유영주

- ◎ 오늘은 연중 제8주입니다.
1. 금주 모임 : ①전례단, 구역반장 모임-공식미사 후
②회장단모임 : 28일(화) 후8시 ③사목회 : 3월2일(목) 후7시
2. 차주 모임 : 꾸리아-공식미사 후
3. 3월1일(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저녁7시 미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①성서쓰기-요한복음(노트판매)
②우유팩을 이용한 저금통, 성미 모이기
③매주일 미사전(10시), 공동 십자가의 길
5. 차주전례 : 해설-서용자, 독서-유영주, 오차주, 기도-정희숙, 복사-김수현, 유원봉
예물봉헌-김상복(라파엘), 조세영(아네스) 부부, 차량운행-한경윤(사도요한)님
6. 성당 청소 : 신교구역
■ 지난주 봉헌금 : 685,200원 ■ 교무금 : 490,000원

아 중

주임부: 244-2268 사무실: 244-6768 주임부: 전종복
F A X : 244-6767 수녀원: 244-6762 서목회장: 홍성준
홈페이지 http://www.cjung1004.net

- ◎ 주님의 자녀로 새로 나신 26분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2월은 예비자자 인도의 달입니다. 예비자자 인도로 적극 동참바랍니다.
1. 금주 모임 ① 희망의 모후 꾸리아 월례회의 - 오늘(28일) 첫 9시
② 올드모데야 - 오늘(28일) 교중미사 후 ③ 청년회 월례회의 - 오늘(28일) 저녁 7시 후 ④ 안나회 - 3월(주일) 미사 후 2. 카를의 센터 거림 기증 : 전입 2세대, 신앙에 100만원, 신앙 증서에는 191세대, 신앙 증액 8,920만원.
3. 성령 부흥회 : 2월 27일(월) ~ 3월 4일(토) 후 7시 30분 ~ 10시까지
오늘(28일)까지 자부심에 신청 바랍니다. 4. 미사시간 변경 : 성령 부흥회 기간 동안 화요일과 목요일은 새벽 6시, 3월 4일(토) 저녁미사는 저녁 7시에 있게 됩니다. 5. 재의 수요일 미사 : 3월 1일(수) 첫 10시 30분, 재의 수요일 예식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 평일의 모후 꾸리아 월례회의 : 다음주(3월 5일) 첫 9시 7. 사목회 : 다음주(3월 5일) 교중미사 후 8. 오늘(28일)은 사제 안영철 출생 100주년입니다. 9. 다음주(3월 5일)은 사랑의 다짐 후원회 10주년 주일입니다. 10. 감사헌금 : 김연희, 안영철, 이영철, 이숙희, 삼만, 카를리나, 이제스트 - 성만, 이덕민 - 일만, 김민준, 청소 - 2구, 4번
■ 지난주 봉헌금 : 1,762,840원 ■ 교무금 : 941,000원

용 진

주임부: 244-3218 사무실: 244-3217 주임부: 한병헌
F A X : 243-3217 서목회장: 이부조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YJcaltho

- ◎ 용진성당 2대 주임신부님으로 부임하신 한병헌(필립보)신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금주모임 : 하상회 - 교중미사 후
2. 차주모임 : 사목회 - 교중미사 후
구역장 회의 - 7일(화) 저녁미사 후
3. 성지가지 회수 : 가정에 있는 성지가지들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4. 금주전례 : 해설 - 정대호, 독서 - 이부조, 차점례
예물봉헌 - 이관정(바로로) 부부
성당청소 - 두억 구역, 차주청소 - 원간중 구역
■ 지난주 봉헌금 : 438,000원 ■ 교무금 : 500,000원

우 아

주임부: 241-1273 사무실: 241-1274 주임부: 권이복
F A X : 241-1275 서목회장: 노승남
홈페이지 : http://www.wooa.or.kr

- ◎ 세포가 살아야 온물이 삼지요? 반모임은 본당의 세포입니다.
- ◎ 중동부 어린이 첫 영성체반(3학년~6학년) 모집합니다.
- ◎ 제6기 새신자 입교식 : 3월5일(일) 교리반 개강 : 3월7일(화)
- ◎ 견지서사 - 3월 19일(일) 미사전례 - 이병호(비제시오)주교님
- ◎ 견지교리 - 3월 8일, 7일 10일 14일 17일 오후 7시 30분 미사부터
1. 금주모임 ① 꾸리아 월례회 - 교중미사후 ② 아레호 - 3월 3일(금) 오전 10시
③ 자모회 - 3월 9일(수) 미사후 ④ 재대회 - 3월 9일(목) 미사후
⑤ 락카 - 오전 9시, 정계, 역전, 상부, 구역반장회 - 3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2. 차주 모임 ① 사목회 - 교중미사후 ② 담임 구역장 모임 - 주일 오전 9시
③ 아가페회 - 3월 8일(수) 미사후 3. 사순절 및 십자가의 길 : 매주 일요일 6시 50분 ※ 감사 : 권이복 신부님, 김주홍 지부님 4. 작년도 성지가지 회수 : 28일(화)까지 가져 오세요 5. 재의 수요일 미사 및 재의예식 : 3월 1일(수) 저녁 7시 30분 미사 ※ 오전 10시 30분 미사는 저녁 7시 30분 미사로 변경 봉헌합니다. 6. 병자봉헌체 : 3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7. 감사헌금 : 박순선(금라라) 10만, 엄정화(금라라) 2만
■ 지난주 봉헌금 : 1,164,000원 ■ 교무금 : 2,220,000원

인 후 동

주임부: 243-5223 사무실: 242-5022 주임부: 양기훈
F A X : 241-8317 수녀원: 245-8875 서목회장: 황우현
홈페이지: http://fr.catholic.or.kr/jnhk59
전번카톡: http://cafe.daum.net/christhaha

- ◎ 환영 합니다. : 김 영남(프란치스코 로마니)수녀님 !
※ 환영식 : 교중미사후
1. 오늘 모임 ① 청년회 - 저녁미사 후
2. 주간 모임 ① 구역(반)장 월례회 - 3월3일(금)전10시
② 재대회 - 3월3일(금)전11시 ③ 성가대 월례회의 - 3월3일(금)저녁미사 후
3. 작년도(2005년)성지가지 갖다 주십시오 ※ 수집장소 : 계시판 아래(바구니)
4. 재의 수요일 예식(금식, 금육) : 3월1일(수) 전10시30분(그 외 미사는 없음)
※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5. 감사헌금 : 문진순, 장수동 각10만 ※ 감사합니다.
6. 성당채(특대판) 성물판매소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7. 성당 청소 담당 : 3월1일(토) : 탄복하을 어머니, 거룩하신 어머니
의부(남성)청소 : 신자들의 도움
8. 보면 지향 기도 및 봉헌 : 금주 - 유일구역 차주 - 우아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636,920원 ■ 교무금 : 1,042,000원

중 앙

주임부: 277-1713 사무실: 277-1711 주임부: 김동준
보좌신부: 278-1713 수녀원: 277-1714 보좌신부: 김주철
F A X : 253-1714 서목회장: 박동근

- ◎ 자세한 공지사항은 중앙성당 소식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06년도 예비신자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1. 예비신자 입교식 : 3월 5일(주일) 교중미사중에 있습니다.
2. 재의 수요일(3월 1일(수)에) 사용할 성지가지들 수거합니다.(2월 26일까지)
3. 매일 성서쓰기(구역서서) : 2월 넷째주는(2월27일(월)~3월 5일(주일))
사무엘기 상권29장부터 ~ 31장까지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179,100원 ■ 교무금 : 2,616,000원

호 성 동

주임부: 241-0075 사무실: 241-1140 주임부: 현유복
보좌신부: 243-5733 수녀원: 244-C094 보좌신부: 박성환
F A X : 241-1226 홈페이지: http://hosong.or.kr 서목회장: 이영주

- ◎ 오늘은 청소년사목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1. 성지가지 회수 : 가정에 있는 성지가지들 오늘까지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2. 재의수요일(단식, 금육제) : 3월1일(수) 이날 미사 중에 재의예식 있습니다.
3. 성체현시 및 강복 : 3월1일(수), 현시-오전미사 후, 강복-저녁미사 중
4. 유아세례 : 3월4일(토) 후3시 어린이미사 중, 접수-3/2일까지 사무실
5. 주간모임 ①산악회-오늘후시(출발(현호소)) ②청소년분과회의-오늘저녁미사후
③제속프란치스코 삼화-28일(화)후2시 ④꾸리아-28일(화)저녁미사 후
⑤구역반장회의-3/3일(금) 오전미사 후 ⑥사목회-3/3일(금)저녁미사 후
6. 사제양성후원회비, 사랑의다리 회비 : 다음주(3/5)에 수납합니다.
7. 교구청 신축헌금 신입 누계 : 276,418천원(신입 안하신분 속히 신입바랍니다.)
8. 감사헌금 : 심재환 -10만 ※ 감사합니다.
9. 3월성당청소 : 월-능하신정령, 셋별의 모후, 토-사제들의 모후, 성실하신성령님
■ 지난주 봉헌금 : 2,090,500원 ■ 교무금 : 1,477,000원

● **교구 사무장(원) 연수회**



교구 사무장(원) 연수회가 지난 14~15일 양일간 교구 사무처(처장=윤양호) 주관으로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 윌리 피정의 집에서 열렸다.

말씀의 전례를 시작으로 열린 이번 연수회는 전산실무와 그룹웨어, 회계관리, 재산관리, 사목행정 등 실무 교육이 있었으며 심성개발, 조별 나눔, 명랑운동회 등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과 사무장(원)간의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특히 '평신도 사도직 영성'에 대한 특강에서 윤양호신부는 "각자의 직분과 소명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교구사무장(원)연합회(회장=하석수)도 정기총회를 열고 2005년도 회무보고에 이어 20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기수도 기자

● **금암 성당 중고등부 동계캠프 및 청년성가대수련회**



금암 성당(주임=김요안 신부) '중고등부 동계캠프'와 '청년성가대 동계수련회'가 지난 17일~18일 양일간 본당과 대천에서 각각 개최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학생들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중고등부 캠프는 모악산 등반을 시작으로 DANCE TIME, 폐제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중고등부를 하나로 만들었다. 첫날 저녁 성당에서 열린 폐제 기도모임에서는 수십개의 작은 촛불의 흔들거림 속에 다양한 폐제의 묵상노래가 기타 선율을 타고 아름다운 기도 화음으로 하느님 앞에 봉헌됐다.

한편 대천에서 실시된 청년성가대 동계수련회는 강의, 묵상 및 기도, 화합의 시간, 진지한 신앙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공동체의 인식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기수도 기자

● **솔내 성당 새가족찾기운동 선포식**



솔내 성당(주임=박종근 신부)은 지난 2월 19일(주일) 교중미사 중에 새가족찾기운동 선포식을 갖고 2006년 사순시기를 선교의 달로 정해 전신자가 선교에 충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은 유영봉 야고보 신부(마산교구 총대리)의 특강과 이어진 선언문 선포, 그리고 전교우가 함께 한 우리의 선서와 선교표어 제창으로 이어졌다. 특강을 통해 유영봉 신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당부하셨던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여라'였으며, 선교사명은 교회의 첫째가는 사명이 아니라 유일한 사명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솔내 성당의 전 교우는 선서를 통해 기도와 희생으로 자신의 성화와 이웃의 복음화에 최선을 다할 것과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새 가족을 찾아 하느님께 인도할 것을 다짐했다. 솔내 성당의 선교운동은 구역반별로 이어지는 사랑의 고리 기도와 반별 선교팀 구성으로 이어져 1인1예비신자를 목표로 4월16일 새 가족 환영식까지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 **삼천동 성당 예비신자 봉헌식**



삼천동 성당(주임=김병환 신부)은 지난 2월 19일(주일) 교중미사 중에 예비신자 봉헌식 증정식을 거행했다. 신자들은 올해 본당 선교의 해를 맞이하여 기도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의 명단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들이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열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병환 주임신부는 강론에서 "선행의 으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느님 품에 안기게 하자"고 강조하였다. |서송원 기자